

억양소의 형태와 기능
- 호주 영어 방언을 중심으로 -

박 영 배

1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음과 모음 등으로 이루어진 음소연속체가 지니는 사전적인 의미이외에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말가락의 변화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은 말가락인 억양이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곧 이러한 의미변화를 가져오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서울말을 이룸)에도 음절 중심보다는 리듬단위의 억양패턴이 다양한 의미전달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현복, 1974, 1976)은 이미 부분적이거나 밝혀진 바가 있거니와 영어의 경우에도 초본절음소에 의한 의미변화의 다양성은 여러 모로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주된 목적은 호주영어방언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억양소 (intoneme)의 형태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이들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 방언에서 엿볼수 있는 몇가지 기능을 요약하고자 하는데 있다. 호주영어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영국영어의 다른 한 유형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초본절음소 특히 억양에 대한 연구는 그 실정이 거의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미국어나 영국어와도 여러가지 면에서 특이한 성격을 띤 호주어에 나타나는 억양소의 면모를 살펴봄으로서 장차 우리말 억양연구의 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도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2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어나 미국어의 경우 이미 오레

전에 억양에 대한 방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전자의 경우 4가지 계층의 높낮이 음소를 주창한 K.Pike(1947)를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Armstrong과 Ward(1949), Kingdon(1958), Jones(1934) 등에서 엿볼 수 있는 2음조 체계에 의한 억양연구가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데 반해 호주영어의 경우를 보면 영미의 그것에 비해 억양연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얕을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정리된 업적이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나와있지 않다. 시드니대학 음성학교수인 애덤즈(C. Adams)가 광계광층의 호주인 295명을 대상으로 약 2000개의 발화(의문문 및 서술문으로 구성됨)를 제시하고 이들의 발음을 녹음하여 시드니대학 음향음성학실험실에서 EMG(electromyography)와 oscillograph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들의 억양을 분석, mingogram에 정교하게 표시된 자료를 기초로 호주영어방언에 대한 억양패턴의 가설을 세운 것이 아마도 호주영어에 나타난 억양분석의 시초가 아닌가 한다¹.

3

그러면 호주영어에 나타나는 억양소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보기로 한다.

실험결과 호주영어²에는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높낮이 연속체 곧 억양소가 적어도 13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실로그래프로 분석한 남녀의 목소리의 높낮이 범위를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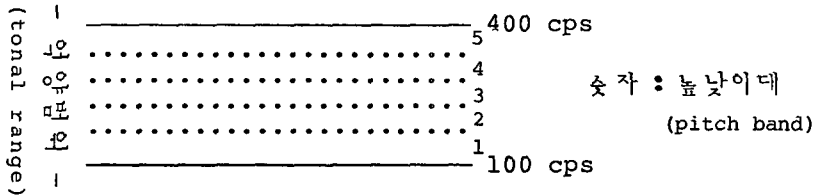
	남 성	여 성
A	60 - 225 cps	E 100 - 385 cps
B	70 - 200 cps	F 100 - 425 cps
C	80 - 270 cps	G 100 - 360 cps

D 80 - 270 cps H 120 - 340 cps

A, B, H : Speaker

위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개개인의 목소리가 나타내는 높낮이는 억양을 감지하는데 있어 음소적인 의의를 지니지 않으며 높낮이의 범위도 정상적인 말소리를 내는 경우 남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개인어(idiolect)마다 그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발화에 따라 높낮이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억양을 기술 할 때에는 높낮이 이동음(pitch glide)의 계층과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령 숫자 또는 불연속선으로 표시해주지 않고 목소리의 높낮이대(pitch band)를 이용하게 되면 억양소의 변화하는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호주영어에는 이처럼 뚜렷한 데조를 이루는 높낮이 계층이 5개가 되는데 정상적인 높낮이의 범위는 5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이 구역내에서 말소리의 오르고 내림 또는 수평조(level tone)를 모두 기술할 수가 있다. 앞으로의 억양소 기술을 위해 억양 범위의 높낮이대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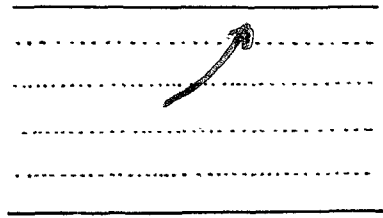


4

호주영어에 나타나는 13개의 억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단일방향(unidirectional)의 억양을 갖는 8개의 단순억양소(simple intoneme)와 하나이상의 방향(내리 - 오름, 오르 - 내림, 오르 - 내리 - 오름 등)으로 높낮이가 이동하는 억양을 갖는 5개의 복합억양소(com-

pound intoneme)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8개의 단순억양소는 Kingdon 의 동적억양 (kinetic tones) 과도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이들 단순억양소부터 하나씩 그 형태 및 의미를 기술해 나가기로 한다.

1. 짧은 높-오름 (Short High Rise)



높낮이대 [3]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5] 로 오르는 억양소를 말하는 데 호주 영어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로는 특수疑問문에 나오는 맨처음의 의문어나 일반疑問문의 꼬리부분, 그리고 부가의 문문의 도착된 주어가 이에 해당된다.

예 : What does it sound lik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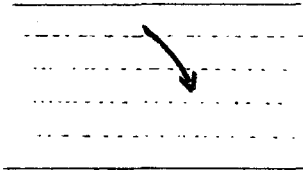
Did you see Othello on television last night?

Terry you come from Charlestown, don't you ?

이런 유형의 억양소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의미이외에 말하는 이의 관심이나 부가의문문의 경우 정보나 소식을 알기 위해 쓰인다.

2. 짧은 높-내림 (Short High Fall)

이 억양소는 높낮이대 [5]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3] 으로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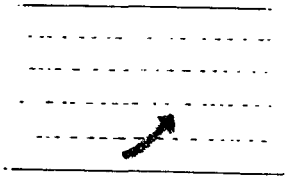


오는 형태로서 높낮이의 높이가 아주 높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변화속도가 급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다른 억양소들을 이어 주는 연결소로(link)로 쓰이며 발화의 첫

음이나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특수 의문문에 나타나는 억양소를 낮은 높낮이 연속체와 이어 주는 기능도 한다.

예 ; What's the matter with John ?
Why are you late ?
How much are oranges ?

3. 짧은 낮-오름 (Short Low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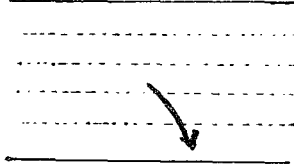
이 억양소는 '높낮이'대 1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2 로 올라가는 형태를 갖는데 짧은 높-내림조와 같이 하나의 연결소로서의 구실을 한다.

때로는 강세를 받지 않는 발화의 중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면담억양(interview tune) 을 표시하고자 할 때, 또는 오르는 부가의문문(앞에 인용한 발화문)의 변칙 정동사에도 사용된다.

예 : They have a lecture three times a week.
They go to play tennis.
Her daughter comes to visit her once a week.

4. 짧은 낮-내림 (Short Low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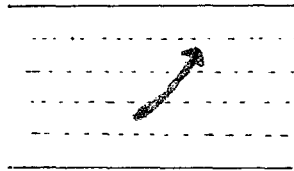
높낮이대 2 또는 3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1 로 내림오는 억양소로서 종결(finality) 을 나타낸다. 이 패턴은 서술문



의 핵음절에서 실현되거나 특수 의문문의 꼬리 부분에 대체로 나타난다.

예 : They look rather worried.
How often do you wind your watch ?

5. 중간 오름 (Medium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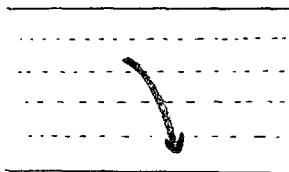


이 억양소는 높낮이대 2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3 또는 4 로 오르는 형태를 지니며 발화의 중간에서 연결억양소로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 긍정서술문의 마지막

에 이 패턴이 오게되면 의심, 지속적인 암시를 띤 예의를 나타내며 부정서술문의 마지막에도 규칙적으로 쓰이는 것이 호주영어 발화의 특징이다.

예 : They go to the pictures once a week.
Sometimes during the Christmas holidays, I think.
I can easily wait.
No, I haven't a car.

6. 중간 내림 (Medium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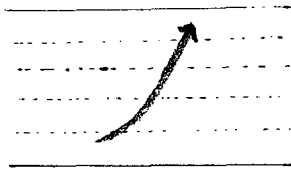


이 억양소는 높낮이대 4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대 1 (또는 2) 로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는데 특수 의문문과 긍정서술문의 핵음절에 쓰이며 부가의문문의 마지막에도 나타나서 일반적인 의미외에도 확

인을 요하거나 말하는 이의 관심을 강하게 표시할 때 쓰인다.

예 : He performed it very well.
Where will he go ?
They weren't at the football, were they ?

7. 뽀뽀 오름 (Extended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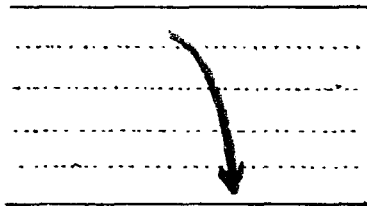


이 형태는 지금까지 기술한 억양소
에 나타난 높낮이 범위의와는 달리
낮은 목소리에서 높은 목소리까지
뽀뽀 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높낮이데 1 (또는 2)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데 5 까지 오르는 억양소로서 서술문의 끝머리
에 쓰여 순수한 관심, 호론 계속의 암시 등을 나타낸다. 발화 끝에 오
는 호칭에는 이 패턴이 예외없이 쓰인다. 또한 부정서술문의 끝부분에
자주 쓰이는 것도 특징이다.

예 : I read a review of it the other day.
Where do you think we'll be sent next year, Perry ?
Yes, but I don't know much about either of them.

8. 뽀뽀 내림 (Extended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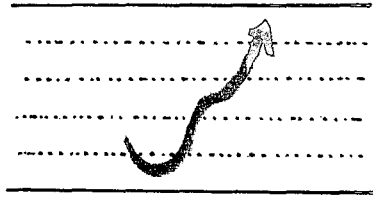


이 억양소는 뽀뽀 오름조와는 똑같은 높낮이 범위를 지니며 높낮
이의 방향만 다를 뿐인데 높낮이데 [5]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데 [1] 로
내려오는 형태를 지닌다. 강조, 빈정거림, 불안등 다양한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이 이 억양소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예 : We should've been there at six.
 What a lovely tree it is !
 How do you feel ?

지금까지 기술한 단순 억양소들이 대부분 의미단위(sense group)의 핵을 이루는 음절(곧, 발화의 마지막에 와서 강세를 받는 음절)에 쓰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복합을 이루고 있는 5개의 복합억양소는 호주 영어의 경우 말소리의 두드러짐(prominence)이 특히하게 나타나서 쓰이는 것들로서 대부분 말하는 이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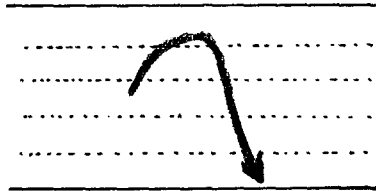
9. 곡선을 이룬 뻗쳐 오름 (Curved Extended Rise)



이 억양패턴은 높낮이데 [1] 또는 [2] 에서 시작하여 오르면서 중간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위로 향하여 높낮이데 [4] 또는 [5] 로 뻗쳐 오르는 형태로써 호주 영어의 높낮이연속체 (pitch sequence) 의 모든 체계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성을 띠는 것 같다. 이 억양소로 나타내면 말하는 이의 함축된 태도나 반박 또는 의심을 나타내며 공정문에도 쓰여 경역, 변명, 호의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예 : When do you have the lecture ?
 Only on Tuesdays.
 I'm not quite sure yet.
 Please sit down.
 O, I don't think so.

10. 곡선을 이룬 뻗쳐 내림 (Curved Extended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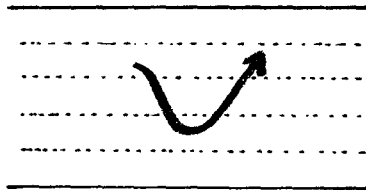
이 억양소는 높낮이데 [3] 또는 [4] 에서 시작하여 [4] 또는 [5] 로 오르다가 높낮이데 [1] 로 내려오는 완만한 억양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서술문의 핵심절에 쓰여 단정적인 암시를 나타내며 특수 의문문이나 되풀이되는 핵심절을 갖는 이례적인 형태의 의문문에도 나타난다.

예 : Yes, he's coming with Mary.

When can you come ?

I said, are you free any night next week ?

11. 중간 내리 오름 (Medium Fall Rise)



이 억양패턴은 높낮이데 [4] 에서 시작하여 높낮이데 [2] 로 내려왔다가 다시 높낮이데 [4] 로 오르는 형태를 지나는데 발화의 중간 특히 주강세를 갖는 단어에 흔히 나타난다 (아래 예문의 'storks').

예 : Paul saw four tall storks walk forth.

말하는이가 앞서 제시한 의견을 반복해서 말할 경우에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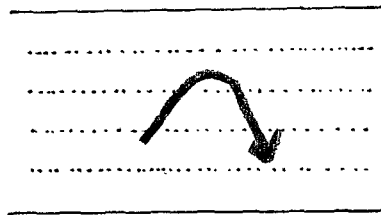
예 : Other films ?

아래와 같은 부정문에

O, I don't think so.

이 억양소가 쓰여 'think' 에 주강세를 두면 점잖게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냄과 아울러 'think again' 이라는 함축적이고 격려하는 암시가 전달된다. 때로는 감정이 담긴 발화에 쓰여 말하는 이의 기분이 다양하게 변화함을 나타낸다.

12. 중간 오르 내림 (Medium Rise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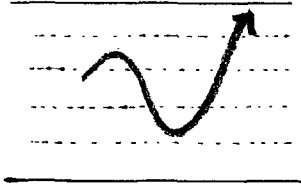
대체로 높낮이데 [2] 에서 시작하여 [3] 또는 [4] 로 오르다가 높낮이데 [2] 로 내려오는 형태를 지닌 억양소로서 확인을 하기 위한 부가의문문에 쓰이며 어강세를 두드러지게 받는 부분이 발화의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예 : She was at the dance, wasn't she ?

You won't be late again, will you ?

13. 높 오르-내리-오름 (High Rise Fall Rise)

호주 영어에 나타나는 13개의 억양소 중 가장 다양한 높낮이범위를



지닌 복합 억양소로서 발화의 맨
처음이 호격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낮이대 3
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약간 더 오르
거나 때로는 5 까지도 오르다가

2 로 내려와서 높낮이대 5 로 올라가는 형태를 지닌다. 발화의 맨
처음이 호격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듣는 이의 관심, 주의를 끌기위해
이 억양초가 쓰이게 되며 본태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의미나 수줍음,
불확실 등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예 : Julie, why did you take up this course in music ?
Yes, but I don't know much about either of them.
Did you do well in the phonetics paper ?
Yes,

5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 영어방언에 나타나는 13개의 억양소는 영국
(또는 미국) 영어의 그것에 비해 비슷한 점도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점
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호주 영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주된 단서(cue)는 목소리의 높낮이라는 점과 이 높낮이의 대조가 규칙
적으로 일어나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과 다음으로 이 억양패턴은 통사적인
기능과 의미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하는 이의 태도가 의문문과 서술문의 의미를 크게 좌우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네는 목소리는 상당한 분량의
시간동안 어느한 높낮이계층에 머물러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일정한 높
낮이범위(cps) 내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높낮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높낮이의 강도(intensity),
음량(volume) 등에 의해서이며 사실 어떤 높낮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음직임은 이어지는 발화의 억양패턴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높낮이대라는 것도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며 그들 사이에 일관된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닌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말소리가 지닌 특이한 성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소리의 높낮이가 연속해서 일어날때 그 연속체(sequence)는 체계적이고 뚜렷한 속성을 지니게 되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언어생활을 누리는 언어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높낮이 연속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호주영어는 영국영어쪽에 가까우면서도 발음 억양 리듬등에서 그 지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독자성을 띤 변화를 겪어오면서 특이하게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호주영어의 억양패턴이 지닌 몇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말의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주기위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언어학적인 강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호주영어의 억양은 통사적인 것과 표현적인 두가지 기능이 주된 기능인데 말의 두드러진 현상을 표시해주는 것은 말소리의 높낮이에 표시되는 강세 변화로서 높낮이와 강세변화는 억양조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발화구조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갖는데 발화구조를 구별해주기 위한 높낮이계층을 5개로 비교적 세분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와 기분을 기술함으로서 듣는 이에게 전달되는 발화의 구조이해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셋째로는 발화의 각 부분을 의미있게 이어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 기능은 우리말과도 뚜렷한 차이를 들어내 주는 것으로서 대체로 영어가 지닌 중요한 의미 전달 기능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호주영어의 억양은 문장에서 말하는 이의 발화 태도에 대한 의미(Attitudinal meaning)를 덧붙여 줌으로써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정서 표현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주영어에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사적 표현적인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말하는 이의 태도가 억양소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높낮이 네조가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박 영배. "억양연구의 이론적 배경". 국제기술협력, 1976.
 이 현복.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1974.
 _____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 호, 1976.
- Armstrong, L.E. and I.C. Ward. *A Handbook of English Intonation*.
 Heffer, 1949.
- Gimson, A.C.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Edward Arnold, 1970.
-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1960.
- Kingdon, R. *Groundwork of English Intonation*. Longman, 1958.
- Pike, K.L.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1947.

< 주 >

- 1) 필자가 시드니대학 음향음성학 실험실에서 애덤즈의 지도로 직접 informant 가 되어 자료를 분석해 보고 얻은 결과와 애덤즈의 가설을 정리한 것이 이 논문을 쓰게된 동기가 되었다.
- 2) 원래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약 260개의 언어(aboriginal languages)가 있고, 각 언어마다 상당수의 방언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구조적인 유사성과 상호이해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영어는 원래 원주민의 언어가 아니다.

< 국민대학교 문과대 조교수 >